

시편 66편 묵상 -
고난 중에서 마음의 악을 버리는 기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환호하게 합니다

개역	사역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지휘자에게, 노래, 시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1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2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2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¹⁾ 영광스럽게 그분을 찬송하라. ²⁾
3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 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2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스럽게 찬송하라.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3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주님의 원수도 주님께 굽실거립니다.
5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嚴威)하시도다	4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셀라)
6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5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는 와서 보아라.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셨도다.
7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自高)하지 말지어다(셀라)	6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니 강을 걸어서 건너갔도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자.
8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7 그분이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두 눈으로 민족들을 감찰하시니 반역자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말아라. (셀라)
9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8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9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12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1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하셨으나 풍족한 곳으로 ³⁾ 이끄셨습니다.
14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3 나는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15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셀라)	14 이것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말한 것이고 환난의 때에 나의 입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 하리로다	15 숫양의 연기와 함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숫염소를 바치겠습니다. (셀라)
17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6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행하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7 나의 입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나의 입술 밑에는 찬송이 있었도다.
19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18 내가 속으로 죄악을 품었다면

<p>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p>	<p>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으리라. 19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애를 나에게서 멀리하지 않으셨도다.</p>
---	--

65편과 6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시편의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65편과 66편의 시인은 만물에 임하는 주님의 복 주심을 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5편의 시인은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만물의 찬송을 노래하였고, 66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만물의 찬송을 노래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각각 다른 시각에서 봄으로써 주님을 더 풍성하게 찬송하도록 인도합니다.⁴⁾

66편은 ‘온 땅아’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개인’으로 좁혀집니다. 1-4절은 세상의 찬송, 5-1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 13-20절은 회개하는 시인의 찬송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만물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큰 주제를 다루는데, “내가 속으로 죄악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으리라”(18절)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만물/공동체’와 ‘개인’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시인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핵심적인 것을 잘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편을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러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 세상의 찬송 (66:1-4)

- 1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 2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그분을 찬송하라.
- 2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스럽게 찬송하라.
- 3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주님의 원수도 주님께 굽실거립니다.
- 4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셀라)

시인은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인지 가득찬 것이 있어서 온 땅을 향하여 “환호하라” 하고 외칩니다. 환호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에 보이는 기쁨

1) 직역하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

2) 직역하면, “그분의 찬송에 영광을 두라.” 찬송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라는 뜻이어서 “영광스럽게 그분을 찬송하라”로 옮겼다.

3) 맛소라 사본으로는 ‘풍족한 곳’(르바야)이나 70인경과 다른 역본은 수정된 단어(르바하)를 택하여 ‘넓은 곳’으로 옮긴다.

4) 65편과 66편에서 같이 나오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집/성전’(65:4 // 66:13), ‘서원’(65:1//66:13), ‘기도’(65:2//66:18-20), ‘두려운 일’(65:5//66:3, 5), ‘온 땅’(65:2//66:1, 4, 8).

의 반응입니다(삼상 10:24; 왕하 11:12). 여호와께서 온 땅에서 통치자로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시인은 온 땅에게 환호성을 올리며 그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분께 환호성을 올릴 때에도 그분의 이름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바르게 알고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영광스럽게 노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것처럼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경박스럽지 않고 무게가 있어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은 그들이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하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운 일로 원수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모두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의 원수도 모두 주님 앞에서 굽실거릴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을 보고서 굴복하는 것은 출애굽의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와 구원의 일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출 15: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출 15:11) 하는 찬송 소리가 홍해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시인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한 다음에 “강을 걸어서 건넜다”고 말합니다. 홍해에서 있었던 일만이 여호수아 때에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넌 사건도 함께 이야기합니다(수 3:14-17). 애굽에서 나올 때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두려운 일을 행하신 사실을 말하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시인의 눈은 더 멀리 향합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이므로 그는 온 땅을 향하여 주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내용으로 찬송하라고 권합니다.

2. 이스라엘의 찬송과 고난의 역사 (66:5-12)

1)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을 보고 찬송하라

- 5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는 와서 보아라.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셨도다.
- 6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니 강을 걸어서 건너갔도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자.
- 7 그분이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두 눈으로 민족들을 감찰하시니
반역자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말아라. (셀라)

시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을 다시 말하면서 모두 와서 그 일을 보라고 합니다. 두려운 일의 대표적인 일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크고 두려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나라들도 놀랐습니다. 블레셋 주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에돔의 두령도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처럼 침묵하게 되었습니다(출 15:14-16). 아무 나라도 여호와를 대항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부른 찬송은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출 15:18) 하는 말로 끝납니다. 66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권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라고 비슷한 내용으로 찬송합니다.

홍해에서 큰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와 통치는 영원하고, 아무도 그 통치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는 이 시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르는 노래만은 아닙니다. 6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자**”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이적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하자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찬송합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이 반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자녀들이 그 예식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출 12:28. 참조 출 13:14-16; 신 6:20-21)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잔치를 치르면서 그 예식이 상징하는 유월절의 구원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66편과 같은 시편을 부르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단지 과거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면서 현재 구원하여 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2) 고난의 역사와 찬송

- 8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 9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 1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 11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지나가게 하셨으나
풍족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든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고 초청합니다. 1연에서 ‘온 땅’을 불러 찬송할 것을 권한 시인은, 2연에서는 여러 백성과 나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권한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길게 말하면 자기들은 여호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고난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길에서 붙들어 주시고(9절) 풍족한 데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12절).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고 그들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실수로 넘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게 넘어져서 목숨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시 121:3).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다른 나라에게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초청하면서 자기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말하는 대신에 어려움 가운데서 지나온 시절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그 과정을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리고 목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

려내셨습니다. ‘연단’은 제련하는 과정과 연관된 나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은을 잘 연단하여 거울로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을 여러 차례 제련하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모두 없어지고 순도가 10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어서 거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잠 17:3) 하는 말씀도 이러한 연단의 과정에서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으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면서 연단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참조. 속 13:9; 렘 9:6; 말 3:3).

11-12절에서는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들의 어려움을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물에 걸려서 끌려가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쓰러졌을 때 그 위로 정복 군인들이나 마차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들은 정복군에게 철저히 짓밟혔고,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머리 위로 전차가 지나가는 부조.
(기원전 9세기, 앙카라 박물관)

물과 불을 지나게 되었다는 말은 여러 경우를 포함하겠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지나다니게 하였다는 말과 붙여서 읽으면 그들이 불과 물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과 같은 기간을 지났다는 뜻입니다. 불이 휩쓸고 지나가서 남은 것이 별로 없게 되었는데 물까지 덮쳐서 남은 것을 모두 다 휩쓸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물의 재난이 함께 닥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풍족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멸절될 것과 같은 과정을 겪었으나 주님께서 살려 주시고 오히려 넓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한 고난에서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고 그런 극심한 어려움 후에 풍요로운 땅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러한 말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시인은 여호와께서 어려움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풍요로움도 보내셨으므로 그 사실을 노래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 주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함께 찬송하자고 합니다. 그 나라들이 혹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므로 함께 그분을 찬송하자고 권합니다. 혹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어려움을 준 민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민족에게도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3. 개인의 서원과 찬송 (66:13-20)

8-12절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였는데 13절부터는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시인인데, 백성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연단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와 백성의 한 사람이 반드시 대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을

읽은 독자가 ‘나’로 생각하면서 이 시를 계속 읽어 가면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시인’으로 표현하면서 읽어 갈 것인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원을 이행함

- 13 나는 번제를 가지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 14 이것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말한 것이고
환난의 때에 나의 입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 15 숫양의 연기와 함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숫염소를 바치겠습니다. (셀라)

시인은 어려울 때에 서원을 하였었습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머리 위를 밟고 다니는 현실에서 주님께 서원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러한 어려움에서 풀어 주시면 주님께 나아와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참조 시 38:3). 시인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숫양, 수소, 숫염소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드리기에 너무 많습니다.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백성 전체나 제사장을 위한 번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시인이 백성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만 국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소나 숫염소와 같은 제물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66편을 부르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서원하였고, 민족의 어려움을 놓고서 개인적인 서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원을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예식을 행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핵심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 기도의 응답과 찬송

- 16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행하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 17 나의 입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나의 입술 밑에는 찬송이 있었도다.
- 18 내가 속으로 죄악을 품었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으리라.
- 19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인애를 나에게서 멀리하지 않으셨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와서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3, 5절)을 바르게 보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두려운 일은 홍해를 가르는 일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 의미를 깨달은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혼에게 행하신 일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큰 곤경 중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입술 밑에는 찬송이 있었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악한 것이 남아 있다면 두려운 분이신 여호와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멀리하지 않고, 그 기도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시인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시인은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을 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지혜와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을 알고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단순히 결과로 얻은 구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고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의 승리가 오지 않았어도 66편의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높이자고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우리의 기도와 찬송

1) 이스라엘과 세계

66편은 '온 땅 -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 - 시인과 개인'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임금 이시므로 온 땅이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인은 온 세상에서 민족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로 좁히면서 주제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모든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들이 잘한 것을 내놓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초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면서 복을 전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높이면서 그분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2) 가난한 자의 기도와 세계의 찬송

66편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온 땅'에서 '우리 민족'으로, 그리고 핵심으로 '회개하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온 땅의 찬송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회개하는 개인으로 집약되고, 그의 진정한 기도와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중앙에 있는 이 시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의 시련과 물의 시련을 당하시고 원수의 마차가 머리 위로 지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유월절의 어린양으로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

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고, 새노래를 부르면서 어린양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땅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되던 해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역사는 다니엘이 드린 회개의 기도 에 의하여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브닌나에게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의 심정을 여호와께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린 결과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사무엘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와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공허한 기도였으나,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눅 18:13) 하고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모든 민족이 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66편은 ‘온 땅’에서 ‘민족’을 거쳐 ‘시인’으로 범위가 좁혀졌는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시 온 땅으로 넓어집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론으로 알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두려운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6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예배가 이처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성은교회, 2009년 1월 1일)